

## 헌신과 봉사에 대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의 생활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헌신과 봉사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헌신이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제까지의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방법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의 방향으로 전환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인격 전체와 생애를 드리는 생활을 말합니다. 또한 봉사란 종(노예)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받들어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헌신과 봉사로 내가 가진 마음, 시간, 재능, 몸, 물질 등 온갖 귀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올바른 헌신과 봉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헌신과 봉사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 1. 예수님께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을 바쳐 사람을 구원하셨으며 사람들을 섬기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마가복음 10장 45절]

#### 2.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 세워지고 성장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에베소서 4장 11-12절]

#### 3.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헌신하며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봉사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성경구절 : 히브리서 13장 16절]

### ☞ 헌신과 봉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공적인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일입니다.

시간과 정성을 다해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구역 모임, 각 기관의 모임, 성경공부 시간 등에 열심히 참석할 때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히브리서 10장 25절]

#### 2. 자기가 가진 자원을 드려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달란트)은 음악에 소질이 있다거나 글을 잘 쓴다거나 잘 가르친다거나 미술에 관심이 많다거나, 또는 남을 잘 지도하고 통솔하며 일을 힘있게 추진하는 능력 등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또 이밖에 건강이나 물질 등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바쳐서 교사, 성가대원, 심방 대원, 교회 관리 등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헌신과 봉사입니다.

#### 3. 어려운 성도나 이웃을 돕는 일입니다.

가난하거나 곤란을 당한 이웃을 찾아서 물질이나 정성을 드려 도와 주고, 선행을 하며 구제하는 일들이 온전한 헌신, 봉사 생활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마태복음 25장 40절]

### ☞ 헌신과 봉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할까요?

아무리 헌신과 봉사가 아름다워 보여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하지 않는 헌신, 봉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골로새서 3장 17, 23절]

#### 1. 헌신과 봉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나를 기억하면서 그대로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를 행하면서 교만해지거나 불평을 말한다면 참된 헌신이 아닐 것입니다.

#### 2. 헌신과 봉사는 자기의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며 일한다면 그것은 헌신과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과 봉사를 할 때에 참된 헌신, 봉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3. 헌신과 봉사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헌신과 봉사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이 알아 주지 않고 힘이 들 때에도 인내를 가지고 헌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 ☞ 헌신과 봉사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 1. 현실적으로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마태복음 6장 33절]

#### 2. 마음의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참고 성경구절 : 요한복음 14장 27절]

#### 3. 영원한 영광을 보장해 주십니다.

[참고 성경구절 : 로마서 8장 18절]

이상과 같이 성도들의 마땅한 생활 태도인 헌신과 봉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헌신과 봉사야말로 성도들의 의무인 동시에 책임이며 교회를 이루어 가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용어 해설

- 임마누엘 -

히브리어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이사야 제 7장 14절, 제 8장 8절)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 아이에게 상징적으로 붙여준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때 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용했으므로 그 이후로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만 칭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속에 영접한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배 안 내	주 일 예 배	1부 예배 : 오전 9시
		2부 영어 예배 : 오전 9시 (2층)
		3부 예배 : 오전 11시
		유*초등부 예배 :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 : 오전 11시
	기 타 예 배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6시
		수요 삼일 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 찬양 기도회 저녁 8시 30분
		중*고등부 금요 찬양예배 저녁 8시 30분
	정 기 모 임	화요일 / 한어 대학*청년부(영) 저녁 8시
		토요일 / 영어 대성경 공부(한) 오후 5시
		토요일 / 청소년 성경공부 저녁 8시
		토요일 / 한국학교 오전 9시

한인 동산장로교회

NEW HOPE REFORMED CHURCH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사무실 : (914) 961-9250 / 1 (Fax 겸용)  
Website : <http://www.newhopeministry.net>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 시의 남서쪽에 리틀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콜롬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과 동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여학생이 증언한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마피아 단원 둘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난사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는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하나가 그녀의 목에 총구를 겨누고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나?”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다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녀는 똑바로 그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Yes, I believe in God).

그러자 그는 총구를 캐시의 가슴에 겨누고는 마구 총을 쏘았습니다.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크리스천 십대들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기 시작했고, 플로리다 주의 한 도시에서는 2천 5백 명의 십대들이 모여 감동적인 신앙교백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집회는 마약 속에 찌들어 죽어가던 크리스천 십대들을 일깨우는 살아 있는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빌라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자인 캐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경의 가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내 출세와 경제적인 이익을 아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